



2025년 3월 16일(제1238호) 시순 제2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죽을 때 변화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말도 있습니다. 이 두 말은 사람이 얼마나 변하기 힘든가를 말해 줍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흔히 화려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기적이라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주시는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화하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종종 봅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바로처럼 회개하고 변화를 이루어간 사람들이 현실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내심 하느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감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 악마의 유혹을 이겨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화가 하느님의 기적이라면, 악마는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도록 함정을 놓습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사람들은 하느님 때문에 변화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게 됩니다. 거룩한 이들의 모습에 감탄하지만, 정작 자신은 거룩해지길 원하지 않는 모순에 빠집니다. 주님, 주님 하며 부르지만, 정작 하늘나라 잔치의 초대장이 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잔치에 가길 거부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응답하지만, 정작 발에 나가 일하라는 주님 말씀을 실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하기 위해 이 유혹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곳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세상을 떠날 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이 이루실 일,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초막을 부수고 유혹에 저항하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유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유혹을 이겨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합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옛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는 게 아니라, 밀알처럼 떨어져 죽을 때, 비로소 사람은 변화합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세례가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 다짐했던 세례의 그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 세례의 첫 다짐은 무너지고, 어느새 유혹에 순응하며 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려 했던 세례 때의 그 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유혹 앞에 밀알처럼 떨어져 하느님 말씀으로 움직여, 마침내 변모의 기적을 체험해 나가는 복된 사순 시기 되시길 바랍니다.



장준교(로마노) 신부
여성대(공군 제16진주비행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회답송

창세 15,5-12,17-18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제 2 독 시 복음 환호송

필리 3,17-4,1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영성제송

루카 9,28ㄴ-36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동정부부 순교지 복자 이순이 루갈다 옥중편지

2. 이순이(李順伊) 루갈다가

친언니와 올케에게 보낸 편지

가을 하늘이 어슴푸레하고 창문 밖의 보름달이 매우 밝아,
달빛이 창가에 비치니, 이 죄인의 회포를 누가 알리요?

누우나 앓으나 구하고 바라는 바는 치명의 은혜라.
소원이 충만하여 각자 말을 하지만 그 바라는 바는 한결같구나!

시아머니의 형제(신희, 이육희) 두 분과 시숙 형제와 함께 우리 다섯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치명하기로 서로 뜻을 정하니 그 뜻이 단단한 바위와 같구나!

마음이 통하고 뜻이 같으니 서로 믿고 사랑하는 바가 빈틈이 없어
우울한 서러움이 자연 잊혀지고, 갈수록 은총이 충만하구나!

기쁨이 넘쳐, 모든 일에 마음이 쓰이지 아니하고, 거리끼는 생각도 없으나
다만 마음 속으로 잊지 못하는 것은
옥중에 계신 오라버님(유중철, 요안) 한 분 뿐이로다! <다음 주에 계속>

『동정부부 순교지 복자 이순이 루갈다 옥중편지』 발췌, 진주교구 치명지신성지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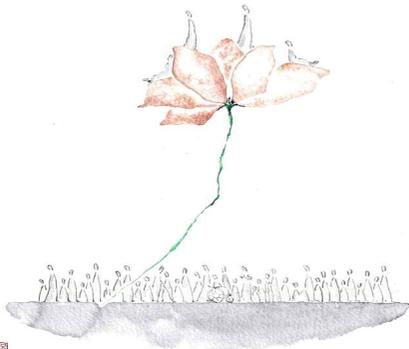
내가 살 곳

사랑하는 우리님과
꿈처럼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결국, 내가 살 곳은
약하고, 작고,
그래서 평범한 이들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잘 알기에
지금 이 꿈도 소중한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예수님의 기록된 변모



알베르 바우츠(Albert Bouts, 1451/1455-1549)
 패널 위 유화, 73.5x45.5cm
 핏즈윌리엄 미술관(The Fitzwilliam Museum), 영국 캔브리지

아버지인 디에릭 바우츠는 매우 유명하고 인정 받은 플랑드르 출신 화가였다. 아버지만큼의 명성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들 알베르 바우츠는 아버지가 추구했던 작품 양식을 충실히 계승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본 작품은 오늘 복음 말씀의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작은 언덕(성경에는 ‘산’이라 적혀 있다.) 정상에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서 계시고(“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었다.”), 공중에 모세(십계판을 들고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 오른쪽)와 엘리야(글귀가 적힌 스크롤을 들고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 왼쪽)가 나타난 모습이 보인다. 복음 말씀처럼 무언가 깊은 대화를 하고 계신 듯이 보인다.

아래쪽에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다 잠들었던 요한, 베드로, 야고보(그림 순서대로)가 잠에서 깨어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환영 / 혹은 빛 때문에 눈이 부신 듯이 보인다.

지면에서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예수님이 서 계신 언덕 뒤편 왼쪽 배경에는 갈릴레아 호수에서 요한과 제임스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른쪽에는 백마를 탄 조지 성인이 용을 죽이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중첩되어 그린 한 장면 속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구약과 예수님과 제자들로 대변되는 신약이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조지 성인의 희생과 피는 초대 그리스도교가 당하는 박해를 상징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정면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는 시간을 초월한 영속성을 지닌,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시순 제2주일: 화상대 박근혁 신부

◆ 교구장 동정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2025년 기획피정
 때·곳: 3월 14일(금)~16일(일), 배론성지

◆ ‘군중의 시간’ 인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산양 회복과 성장을 위한 긴장성사의 해” - “상량까지 너희에게 나타내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